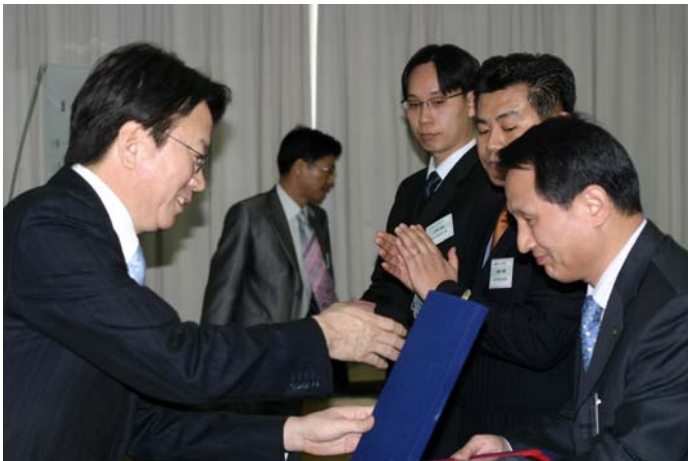


서울프로폴리스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프로폴리스 허용갑 대표이사가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2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19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용갑 대표는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해온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과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 분과위원장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정책위원회 및 식약청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공전 입안예고와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여년간 식품업계에 종사하며 정책과제 6건 수행, 국내외 논문 8건 발표 등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한국프로폴리스연구회 총무 및 제1회 세계 프로폴리스 사이언스 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신기술평가기업으로 창업한 서울프로폴리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 최초로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 공법을 개발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실험까지 완료했다.

수용성 프로폴리스 추출기술은 항균,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천연 항생제로 각광받으면서도 수용화가 어려워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동물약품 등에 널리 사용하게 됐다.

한편, 프로폴리스(Propolis)는 꿀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유지하기 위해 식물들이 분비하는 피톤치드와 수지(Resin) 등에 자신의 침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물질로 항균, 항산화 효능을 가진 천연 항생물질이다.

<화학저널 2008/02/29>